

대한제당(주)

철저한 방역, 완벽한 차단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 동절기 특별 방역 캠페인 시행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사료BU 이강환 사업본부장)는 겨울철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지키기 위한 '동절기 특별 방역 캠페인'을 시행한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하고, 철저한 차단 방역을 위한 활동에 전사적인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FMD, AI와 같이 축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주요 질병에 대한 재발 방지와 최근 전국적으로 발병하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성공적인 캠페인 활동을 위하여 생산부터 물류까지 방역 매뉴얼을 점검하고, 영업소별 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방역 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또한 고객 농장의 질병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료 출고와 배송 과정의 철저한 소독과 방역도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점검을 재차 강조하였다.



대한제당 관계자는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공장과 영업소를 중심으로 방역 매뉴얼과 방역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축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각오로 방역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방역의식으로 완벽한 차단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축산경기가 회복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농장 경영과 안전한 축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한제당의 이번 ‘동절기 특별 방역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두산생물자원

두산생물자원 고용노동부 주관 '산업포장' 수상



윤영호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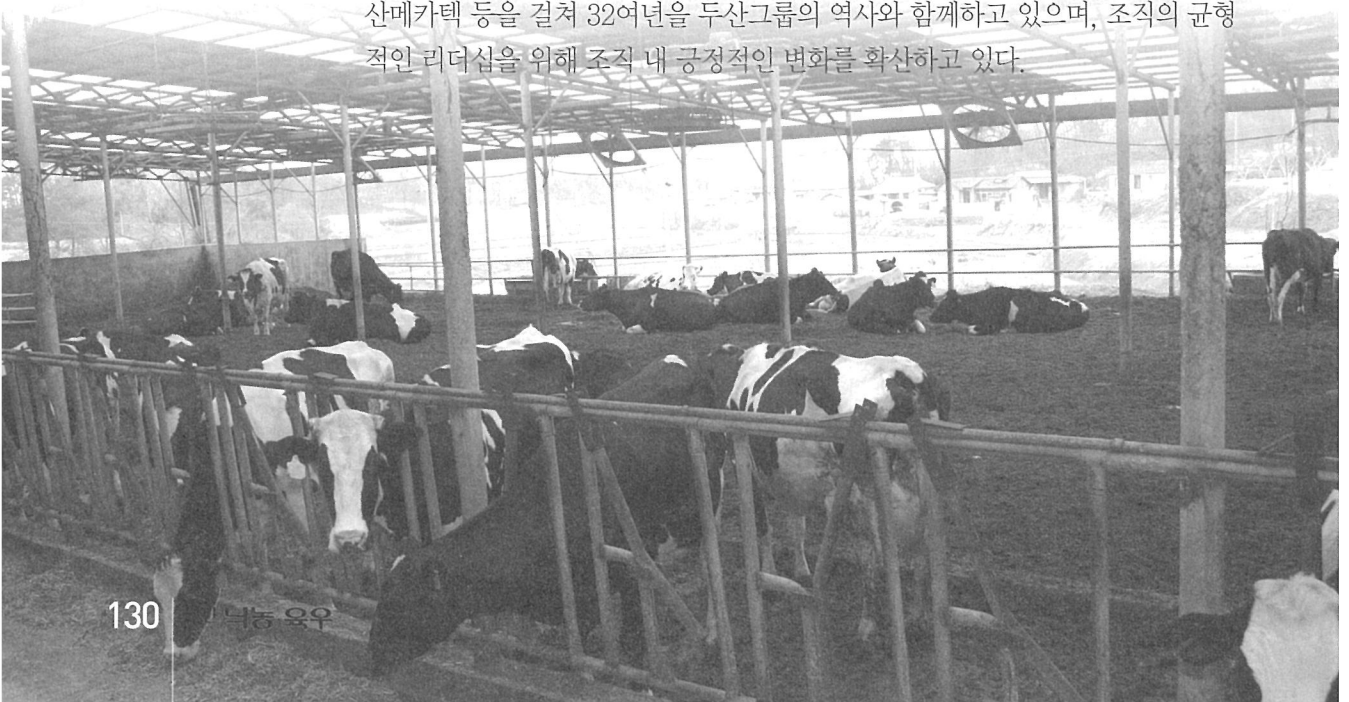
지난해 2013년 12월 24일 서울 GS타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13년 일자리 창출지원 유공시상식' 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精勵: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노력함)하여 그 공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두산생물자원 윤영호 대표(사진)는 교대제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고,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마련하여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 근로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12년 노사발전재단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2조 맞교대를 3조 3교대제로 전환에 성공하였고 교대제 전환에 따라 신규 고용창출, 연장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었다. 규모는 작지만 강한 회사 만들기 위한 근원적 경쟁력 확보,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노력하며 국제과제 등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Function별 경쟁력 확보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추진 과정에 있어 노사간 충분한 협의절차 등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윤영호 대표는 두산식품에 1981년 입사하여 전략기획본부, SRS KOREA, 두산메카텍 등을 걸쳐 32여년을 두산그룹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으며, 조직의 균형적인 리더십을 위해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하고 있다.



우성사료- 대한민국 낙농리더 K-Farm Day전국순회 실시

낙농사료_밀크하우징 전국에서 우수성 입증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낙농리더K-Farm Day” 행사를 경북 대구, 경기도 파주, 전남 나주를 순회하며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대구지역은 지난 2013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낙농 경영인2세들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우성사료 박희승 축우부장은 즐거운 낙농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낙농경영인 2세들의 자립과 발전을 위한 지원에 우성사료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김기덕 축우과장이 진행한 경기도 파주 행사에서는 우성사료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접목한 후 성적이 개선된 파랑새목장(대표 문진동)은 유량 5.2kg 증가, 공태일수 25일 단축, 덕현목장(대표 박윤재)은 305일 유량 818kg 증가, 동이목장(대표 김인수)은 하루 평균유량 30kg 수준에서 40kg을 달성하는 성적을 나타냈다.

파랑새목장 문진동 대표는 사료 교체 전 번식과 유량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교체 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고 설명하였으며 혹서기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여 여름철을 잘 지냈다고 하였다.

나주 지역의 유철중 축우 과장은 ‘유성분 변화에 따른 수익 극대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유과장은 전국 최고의 목장이 되기 위하여 “체세포, 유량, 유단백, 유지방, 번식 간격 중 수익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올리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내리는 밀착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개된 한샘목장(대표 최종율), 민선목장(대표 김병근), 안산목장(대표 박태주),



도움목장(대표 박두호)은 유량, 분만간격, 체세포에서 전국 검정성적 대비 성적이 우수하며 특히, 2014년부터 적용되는 유대 정산체계 중 유단백 부분의 최고에 해당하는 3.2 이상에 4개 농장 모두가 포함되었다.

우성사료 밀크하우스 SER+DUCT 프로그램은 목장에 맞는 배합설계, 반추위 능력개선을 통한 건물섭취량 증대, 고능력 젖소의 체유지, 좋은 유질을 위한 최적의 영양밸런스, 대사성질병 예방 및 번식능력 강화, 젖소들의 건강관리 체크, 유성분 분석 및 평가, 사육환경 분석 및 목장경영 분석 등 고능력 젖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2013 축산·사료 연구기술대상 시상식 열어

업적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을 높이 사



2013 축산·사료 연구기술대상 시상식 전경



2013 축산·사료 연구기술대상 수상자들과 재단 이사진들

2013년 12월 11일 재단법인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이보균)은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2013년 카길애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대상” 시상식을 열고, 각 분야에서 공헌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였다.

이보균 재단 이사장은 “〈삶을 풍요롭게, 지역사회를 풍성하게〉라는 재단의 비전에 맞게 올 한해도 여러 활동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재단이 노력하여 연관 산, 학 분야의 우수한 업적들을 발굴하는데 경주하겠다”고 인사하였다.

이 날 개인부문으로는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채병조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 / 최희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장에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었다. 단체분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가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였다.

문화재단은 올해로 16회를 맞는 시상식뿐 아니라 여러 활동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